

# ‘방탄소년단’ 앨범 모티브 책 잘 나간다

12일 새 앨범 발매 앞두고 인기 ‘용의 영혼의 지도’ ‘BTS: The Review’ 수영대회 성공 기원 28일 슈퍼콘서트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새 앨범이 오는 12일 세계에 동시 발매 예정인 가운데, 새 앨범의 모티브가 된 책과 ‘방탄’의 음악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메시지와 정체성 등을 분석한 책들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베스트셀러 흐름까지도 바꾼다는 게 출판계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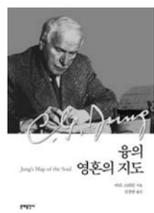
특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방탄소년단’이 오는 28일(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슈퍼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있어, 지역에서도 BTS와 연관된 책들의 판매도 늘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8일 새 앨범의 트레일러 ‘페르소나’를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 (맵 오브 더 소울 : 페르소나)에서 노래할 주제는 ‘영혼의 지도’.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이번 앨범 주제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SNS에서 2015년 발간된 ‘용의 영혼의 지도’ (문예출판사)를 권장 도서로 언급한 바 있다.

책은 미국 시카고 용 연구소에 있는 머리 스타인 박사가 구스타프 용의 이론을 쉽게 분석해 정리했다. 용은 프로이트와 함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꼽힌다. ‘영혼의 지도’라는 제목처럼 머리 스타인 박사는 용의 심리학 이론을 지도 제작 과정에 빗대 풀어낸다. 저자는 영혼의 맨 위 표면에 해당하는 자아에서 출발해 콤플렉스, 리비도 이론, 그림자 등 다양한 영역들을 다룬다.

특히 앨범 명 ‘맵 오브 더 소울 : 페르소나’에서 보듯 ‘페르소나’는 ‘용의 영혼의 지도’에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다. 원래 페르소나는 배우의 가면을 의미한다. 용은 그 같은 연상에서 ‘페르소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써 형성된 인물’로 보았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볼 때 페르소나는 개인의 의식적 생각과 감정을 타자에게 감추거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기능 콤플렉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BTS는 가수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 사이의 거리감과 여기에서 파생



되는 의미 등을 새롭게 펼쳐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빌보드 뮤직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등의 성과 이면에 드러워진 자연인으로서의 속내 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예출판사 관계자는 “보통 ‘용의 영혼의 지도’는 1년에 400부 가량 판매되는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3월까지 1만부가 팔려 무려 2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앨범의 모티브가 책 판매의 증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초기에는 경제력이 있는 20~30대의 구매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녀를 둔 40대 이상의 학부모들이 책을 구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2016년 정규 2집 ‘윙스’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로, 불안한 청춘의 내면을 형상화해 시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앨범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는 ‘BTS: The Review’ (알에이치코리아)의 판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음악 평론가 김영대가 쓴 ‘방탄소년단을 리뷰

하다’는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저자가 BTS 투어 현장에서 만난 팬, 해외 언론의 반응 등을 토대로 진짜 성공 비결을 들여다본다.

또한 책에는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 문학평론가 신형철,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 김창남,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 한국인 그래픽 선정위원 팜페라 테너 임형주, 작곡가 브러더스 등과의 인터뷰도 수록돼 있다.

“BTS의 작업이 몇 곡만으로는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총체BTS Universe’를 이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이 대목에 흥미를 느낍니다. 어떤 팀이 멤버 각자를 캐리커처해서 지속적으로 집합적 서사를 써나가는 사례를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문학평론가 신형철)

책은 이처럼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이 BTS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기존의 책들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다.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관계자는 “국문판 1만부, 영문판 1000부 2권을 출간했는데 모두 소진됐다”며 “영문판 같은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외국에서 더 반응이 뜨거운 것 같다”며 “앨범 발매가 다가올수록 관련 책들의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발매되는 방탄소년단 앨범은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되며, 첫 무대는 13일 미국 NBC방송 코미디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29~30일 열린 광주시립오페라단 ‘망부운’ 공연에서 한국어판 주연을 맡은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고규남이 열연하고 있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 리뷰- 첫 광주 공연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 대표 아리아 부족·단조로운 서사 아쉬움

고대 중국 표현 노력 돋보여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이 57년 만에 복원돼 지난 29~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등 200여 명이 출연하고 100여 명의 제작진이 참여했다. 소프라노 박수연, 테너 고규남, 소프라노 차이안-테너 쉐하오인이 각각 주인공인 공주와 아백을 맡아 한국어·중국어 공연에 나섰다. 정갑근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고 김덕기 전 서울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았다.

관객들은 2시간 여 동안 4막 2장으로 진행된 공연을 감상했다. 첫날 1430명·둘째 날 1250명의 관객이 찾아 각각 객석 점유율 81.3%·72.6%(전체 1722석)를 기록했다.

‘망부운’은 지난 1962년 중국 베이징에서 초연된 뒤 전막 공연이 이뤄진 적 없는 작품이다. 지난 2017년 창단한 광주시립오페라단이 3년 여 간 복원을 추진해 의의를 더했지만 이목을 끄는 아리아(독창곡)가 부족한 점과 단조로운 서사 구조는 과제로 남았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첫 번째 브랜드작인 만큼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인의 흥미를 끌 만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반면 오페라가 생소한 57년 전 작품임에도 중국 전설을 서구적 음악형식으로 담아내 해외 진출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망부석’ 민담과 비슷해 공감대를 이뤘고, 청순가련형 여성상을 뽐내고 불의에 맞서는 당당한 공주 캐릭터가 흥행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망부운’은 당나라 시대 중국 운남성 대리지역의 소수 민족 백족(白族)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냥꾼 아백은 공주의 사잇감을 정할 경매대회에서 왕후의 조카인 단창과 겨뤄 승리를 거둔다. 공주는 단창과 결혼하려는 계모 왕후의 강요를 뿌리치고 공경을 나와 아백과 재회한다. 왕후의 편인 나전법사는 눈보라를 일으켜 아백을 호수에 빠뜨리고 공주는 복수를 다짐하며 구름으로 변한다.

막이 오르자 폭풍이 엄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서곡이 좌중을 압도했다. 이어 경매대회를 알리는 행진곡 풍의 합창이 도입부를 채웠다.

‘중국 3대 음악가’로 불리는 정율성의 오페라에서 음악, 배경, 의상 등 전반적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3막을 시작하는 공주의 아리아 ‘아 아름다운 풍경이여’는 정율성의 음악 색깔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소프라노 박수연이 사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서양식 오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경극의 리듬과 창법이 작품 곳곳에 묻어났다. 3막에는 조선시대 국무용단이 등장해 서산백죽무곡, 토족무곡, 영진무곡 등 중국 민속 가락과 함께 전통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어 대본을 번역한 탓에 언어와 음악이 지닌 유기적 조화와 운율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일부 대목은 주어진 음표와 노랫말이 들어맞지 않기도 했다.

고대 중국 무대에 옮기려는 제작진의 노력은 돋보였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배경 영상은 방대한 자연 현상을 무대에 담아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공연 내내 등장하는 나선형 경사면은 무대를 전환하고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남편을 그리워하는 구름이라는 뜻의 제목 ‘망부운’ (望夫雲)에 걸맞는 결말을 연출하지는 못했다.

실제 부부이면서 주역을 맡은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고규남의 호흡은 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아백과 공주가 절규하며 헤어지는 4막 2장에서 이들은 고난도의 고음과 최고도에 달한 감정 표현을 소화해냈다.

몰입을 방해하는 일부 시도들은 흠이었다. 갈등의 시초인 경매대회 장면에서는 열댓 명의 깃발 부대를 등장시켜 아백과 단창의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했다. 아백이 사냥신이 준 낚시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은 부자연스러운 탓에 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붉은 깃발이 꽂힌 말 머리 형상과 지나치게 큰 화살표 형상들은 관객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광주의 한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연회 때 보다 발전된 편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클라이맥스가 미흡하지만 이는 대본의 문제일 것이니 중국적 오페라의 매력은 국내외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망부운’은 오는 10월 주상하이 한국문화원과 하얼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시민인문학 정기강좌 5월4일까지 열려

전남대 후문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66기 정기강좌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다.

전남대 후문 카페 노블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되는 강좌는 여행인문학, 동화창작, 글쓰기, 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 여행인문학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공부하고 떠나는 자유여행-in 도쿄 문화관 순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 동화창작 시간에는 김명화 동화작가가 ‘나도 동화작가-동화,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주제로 강의하고 수요일 글쓰기 교실에는 명혜영 교수가 ‘자유주제 리포트 & 콜로키움 ‘논리 수업’을 진행한다.

목요일 인문학후 시간에는 신우진 씨가 ‘목독회, 심인심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금요일 철학스터디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토요일 영화인문학(오후 2시)에서는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이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